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2>

# 남 속이고 도둑길 가려고 출가했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출가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명성을 얻으려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을 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問 如何是出家  
師云 不利高名不求垢壤

출가자에게 독(毒)은 명예와 재물이다. 출가자는 세속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 이유는 오로지 마음 속의 번뇌를 끊어내고 해탈을 얻기 위함이다. 출가자가 해탈을 얻은 다음에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더욱 부모자식을 돌아보기 힘들다.

대장부로 태어나 남들이 다하는 혈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오명이다. 다만 출가의 뜻이 좋아 그런대로 이해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출가하여 해탈을 얻거나 남을 위한 헌신은 고사

## 명예·재물은 출가자의 독 해탈 체득에 힘써야

하고 오로지 일신의 안일만을 위한 명예, 더럽고 추한 재물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왜곡되고 소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도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아니면서 구차한 한 몸뚱이의 명성과 안일을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해 부처를 파는 것에 일평생 몸을 바친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사기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렇게 남을 속이는 도둑의 길을 가려고 출가한 것인가? 뜻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 이러한 수모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출가한 것인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헤아려보아야 출가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다만 한 법도 가리키지 않는다 하는데 무엇이 화상의 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묘산(妙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학승이 말했다.  
“묘산(妙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하셨는데 그

러면 어떤 것이 화상의 법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에게 이미 묘산(妙山)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 고 말했잖아.”  
학승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이 그것[묘산의 법]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아직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 단 말이야.”

問 不指一法 如何是和尚法  
師云 老僧不說妙山法  
云 既不說妙山法 如何是和尚法  
師云 向你道不說妙山法  
云 莫者箇便是也無  
師云 老僧未曾將者箇示人

<금강경>의 핵심 설법은 무상(無相), 무정(無定), 무명(無名), 무위(無爲)이다. 이것을 잘 살펴 보면 불법은 한 법도 세우지 않고 있음[不指一法]을 알 수 있다. 불교는 한 법은 물론이고, 한 생각도 세우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로 도교가 불교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인도의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 불경의 언어 몇 가지를 도교에서 쓰는 말로 번역했다. 대표적인 단어가 무위(無爲)이다. 그래서인지 어떤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선불교는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곤란하다.

도교와 불교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경전에 바탕을 둔다. 부처의 마음을 중시하고, 현재에서 해탈을 구하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은둔이나 도피가 목적이 아닌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감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 그 자리에서의 해탈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는 그 무엇도 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묘산의 법도 세우지 않는다. 묘산은 조주 스님 당시 도교사원이 있었던 산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불교도 세우지 않고, 부처도 세우지 않는다. 선사들은 무엇을 가리키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 역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특별히 보인 적이 없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눈앞에서 홀로 해탈하는 한 길[目前獨脫一跡]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2도 없고 3도 없는 거야.”  
학승이 말했다.  
“눈앞의 그 길로 학인이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러다가는 천리만리 멀어져!”  
問 如何是目前獨脫一跡  
師云 無二亦無三  
云 目前有路 還許學人進前也無  
師云 與麼即千里萬里

목전에서 해탈하는 길에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한 길만이 해탈하는 길이다. 수행은 여러 길이 있다. 명상, 요가, 위빠사나, 독경, 화두 참구, 주력 등이 있으나 이들 수행은 모두 해탈을 돕는 수행이지, 직접 해탈이 일어나게 하는 수행은 아니다. 진정한 길은 한 길이다. 해탈은 목전에서 일어난다. 엄밀하다가 한 생각이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화두를 듣다가 한 생각이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선사의 법문을 듣고 한 생각 툭 터졌을 때 일어난다. 깨달음은 한 찰나에 아귀가 맞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향상사(向上事)입니까?”

## 수행법은 해탈 도울 뿐 무엇이 됐든 한 생각 툭 터져야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자네의 발밑에 있어.”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저의 발밑에 계십니까?”  
“자네는 향상사가 있음을 원래 알지 못하고 있군.”

問 如何是毘盧向上事  
師云 老僧在你脚底  
云 和尚爲什麼在學人脚底  
師云 你元來不知有向上事

향상사(向上事)는 ‘한 단계 높은 일’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는 보림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향상사이고, 부처에게는 좀 더 효율적인 차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향상사이다. 비로자나불의 향상사라 함은 비로자나부처님이 지향해 나아가는 길을 말한다.  
조주 선사가 “노승은 자네의 발밑에 있어”라고 말한 것은 한없는 겸손을 표현한 것이다.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는 것이 이들의 향상사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 선어록 해제 32 한국선과 선어록 3

# 순지화상어록

신라 말기에 오관산(五冠山) 서운사(瑞雲寺)에 주석했던 순지(順之: 807~883)는 선종오가 가운데 위양종 선법을 전승해 원상(圓相)이라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편을 통해 해동에 선종을 진작한 인물이다.

순지에 대한 행장 및 그 어록은 <조당집>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어록이라 해도 단행본으로 전승한 것은 없지만 <조당집>에 수록된 그 법어 및 저술로 간주되는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은 독립된 어록으로 간주해도 손색이 없다. 이에 의하면 순지는 위양종 양산해적의 법을 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남양해종 국사로부터 비롯되는 표상현법(表相現法)을 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선법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순지화상의 표상현법에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 둘째는 양대사상(兩大四相),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 등으로 도합 10대 17상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곧 온갖 기호와 부호 및 상징적인 원상(圓相)을 통해 선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수행의 방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처음에 육조해능의 제자 남양해종이 96종의 형상을 통해 전승한 이후로 그의 제자인 탐원응진(耽源應眞) - 양산해적(仰山慧寂) - 요오순지(了悟順之)로 계승됐다. 순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표상현법을 창안했는데 <조당집>을 통해 지금도 17종이 전해지고 있다.

순지는 수행과 교화에서 위양종의 표상현법(表相現法)과 화엄의 도리에 입각한 증리성불법(證理成佛法)으로서 <삼편성불론>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전승했다. 표상현법은 달리 방원목계(方圓默契)라고도 한다.

그 원리는 화엄의 도리에 입각해 증리성불(證理成佛)·행만성불(行滿成佛)·시현성불(示顯成佛)로서 이론과 실천이 결부된 가르침이기도 하다. 증리성불이란 선지식의 말을 듣고 일념(一念)에 돌이켜 자기의 마음 바탕에는 본래의 일물(一物)도 없음을 활짝 깨치는 성불이다. 만행을 차례로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 한다.

행만성불은 이미 진리의 근원을 끝까지 구명한 이후에 다시 보현의 행위를 따라 보살도를 두루 닦아 수행이 끝났을 갖추어지고 지혜와 자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시현성불은 앞의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자행성불(自行成佛)을 마친 때 중생이 바꾸어 성불한다는 뜻으로 곧 석가가 팔상성도를 행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삼편성불론>에 대해 그것을 실제로 증득해 나아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삼증실제설(三證實際說)로 화엄사상을 선가의 입장에 서서 깨친 이후에 실천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의 중

심 문제는 돈오한 수행인이 지구력으로 계속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면 근기의 차이는 있으나 언제나 동귀일미(同歸一味)하는 때가 올 것으로 신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또한 선인과 은사의 문답으로 선리를 이끌어 가되 선리에 대한 대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삼증실제란 첫째는 돈증실제(頓證實際)이고, 둘째는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이며, 셋째는 점증실제(漸證實際)이다.

돈증실제는 중생이 무시에래로 성품을 깨닫지 못해 인연 따라 삼계에 윤회하다가 홀연히 선지식을 만나 성품을 깨치므로 어느 단계적인 점수에 의지하지 않고 정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회점증실제는 무시에래로 자신의 성품을 깨치지 못해 윤회하다가 점차 삼승의 정교를 듣고 삼승법을 알아가는데 홀연히 진교(眞敎)를 듣고서 묘해를 터득해 실재를 증득하는 것을 말한다. 회점증실제는 삼승법을 익히고서나서 비로소 돈증으로 나아가는 점에서 돈증실제와 다르다.

점증실제는 어떤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성품의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삼계에 윤회하면서 인연 따라 과보를 받다가 갑자기 점교(漸敎)를 듣고서 믿음과 이해가 차츰 생기면 수행은 여섯 가지 지위에 의

탁하고 삼아승지 겁을 지내면서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미혹을 끊고 덕을 이루면 비로소 무위의 참지혜를 얻고 법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믿음의 싹이 돋으면 부처님들이 모두 다 아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닦으면 세상은 결과로 증득한다는 것이다. 삼아승지 겁 동안 육도수행(六度修行)을 통하여 무위의 중자를 익혀 불가사의한 과보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현의 온갖 보살행에 대하여 출전보현(出纏普賢)·입전보현(入纏普賢)·과후보현(果後普賢)의 세 가지로 나눈다.

출전보현(出纏普賢)은 견성안 이후에 보현행을 하는데 모든 경계 앞에서도 한 생각 일어나더라도 이미 심원(心源)에 도달해 그로부터 환화(幻化)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입전보현(入纏普賢)은 일체중생 가운데서 동류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앞의 출전보현위(出纏普賢位) 가운데 비지(悲智)를 널리 행하여 중생속에서 자리타락을 하는 것이다.

과후보현(果後普賢)이란 두루 삼매를 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삼편성불론>에는 수행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경전연구회 경전강좌 안내

출가 스님들만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 설우스님
- 경 전 : 금강경오가해
- 과 정 : 1년
- 모집인원 : 약간명
- 개 강 : 2011년 3월 17일(목) 오후 3시 첫강의
- 수 강 료 : 20만원 (6개월)
-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불교경전연구회에 뜻을 함께 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불교경전연구회에서 개설해 수많은 스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온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회	고우큰스님	육조단경	제 5회	지안큰스님	대승기신론
제 2회	고우큰스님	선요	제 6회	통강큰스님	전등록
제 3회	헤거큰스님	유식삼십송	제 7회	통강큰스님	선문촬요
제 4회	무비큰스님	임제록	제 8회	설우큰스님	금강경오가해

나,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기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2608-01-001671 (예금주 : 경전연구회)

☛ 문의 : 회장 무각스님 011-9929-4457 / 총무 법정스님 010-7963-7070 / 재무 정담스님 010-9669-3917

불 교 경 전 연 구 회 회 장 무 각 합 장

# 영남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승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지장성,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승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범운 스님, 상운 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1년 3월 3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1년 3월 10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분중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 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